

# 국내 노동자기업인수 사례요약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정책실장

★ 2003년 10월 3일 작성글

1. 노동자기업인수센터 등의 노동자 기업인수 지원현황

2. 센터의 지원업체 중 인수업체의 비율

3. 노동자 인수기업의 원인별 분류

4. 노동자기업인수의 자금원

5. 노동자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내용등

1) 지원 이유

2) 지원의 내용

6. 노동자 인수기업 그후

별첨 1: 실패사례 요약

별첨 2: 노동자기업인수 지원센터가 인수를 지원한 업체 현황

## 1. 노동자기업인수센터 등의 노동자 기업인수 지원현황

<1998 ~ 1999. 10 월까지 노동자 기업인수 지원현황>

센터지원업체	외부파악업체*	계
127 개 업체 (제조 78 개, 비제조 49 개)	6 개업체 (제조업 5 개 비제조업 1 개)	133 개 업체

\* 외부파악업체: 노조.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업체를 의미

## 2. 센터의 지원업체 중 인수업체의 비율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지원업체 중 인수업체 비율(98 ~ 99.10)>

구분	인수업체	경영참여로 선회한 업체의 수	인수 무산된 경우	계
업체 수	104 개 업체	10 개 업체	13 개 업체	127 개 업체
비율	81.9%	7.9%	10.2%	100%

## 3. 노동자 인수기업의 원인별 분류

<노동자 인수기업(인수무산 등 제외)의 원인별 분류(98 ~ 99.10)>

인수의 원인	업체수	비율	비고	
--------	-----	----	----	--

기업의 부도	62 개 업체	59.6%	미분류 13 개 업체는 99 년 10 월 현재 신규회사의 설립 및 자산인수계약의 체결 등 신규인수업체들임	
분사	15 개 업체	14.4%		
퇴출 또는 청산	3 개 업체	2.9%		
기타	11 개 업체	10.6%		
미분류	13 개 업체	12.5%		
합계	104 개 업체	100%		

#### 4. 노동자기업인수의 자금원

-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원은 대부분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자체조달(자기보유자금 또는 개인대출 등)한 경우가 대부분임.

#### 5. 노동자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내용등

##### 1) 지원 이유

- 98 년 제 2 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부도기업의 노동자인수를 지원하는 것은 실업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또는 고용안정 효과)이 될 수 있다”는 노사정 3 자의 공감대 형성의 결과로 “노동자인수기업 및 경영자인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합의문”을 채택하게 됨

-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합의와는 별도로, 제 2 기 노사정위원회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관련 합의문>에 기초한 우리사주제도 개선 논의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노동자기업인수가 소유경영구조의 선진화.생산성 향상 등 제도의 취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업구제수단과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기업인수 지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근로자복지기본법 제 42 조)됨

##### 2) 지원의 내용

- 노사정 합의에 상응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의 실효성은 거의 없었음

- 우선 노사정 합의의 결과 마련된 노동부 등의 지원대책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들어난 바 있음

- 또한 그나마 실효성 있었던 지원은 “고용유지 지원금 특별지원”(한시적 지원, 노동부 소관사항)과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중소기업청 소관)이었으나, 이

조차도 본 센터가 지원한 업체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없고, 오직 1 개 업체만이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르비앙전자 1 억원)을 받은 바 있음

## 6. 노동자 인수기업 그후

-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가 기업인수를 지원한 업체(127 개 업체) 중에서 인수를 완료하여 노동자인수기업으로 전환된 104 개 업체 중에서 일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정상화에 성공하였으며, 또한 대부분 한계기업 인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존률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만도맵앤소프트(98 년 12 월 인수, 2001 벤처기업대상중 “중기청장상” 수상).천지테크(98 년 6 월 인수, KEY SET 등 자동차부품생산업체) 등은 우량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함

- 본 센터가 2003 년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수이후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기업은 혁성운수.백상타월.르비앙전자, 빌리지개발, 한림스키저캐스팅, 삼화정밀 정도임.

- 그러나 본 센터의 추상적 파악과는 별도로, 2003 년 현재의 노동자인수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현황(경영정상화와 생존률, 소유 및 경영구조의 변천, 재무상태, 타기업과의 관계 등) 및 이들 기업들의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사.연구.통계 등의 작업이 있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단체로서 소수전문가의 자기희생 등에 기초한 본 센터의 현재 상태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별첨 1: 실패사례 요약

### △ 혁성운수(주): 노동자인수기업 실패사례

- 서울소재 시내버스 업체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98 년 9 월기준: 자산 54 억 8 천 3 백만원, 부채 95 억 5 천 7 백만원, 자본금 7 억 3 천 6 백만원)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금압박에 몰린 전사업주가 경영포기조건으로 직원인수 제의.
- 악성부채 등 부채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부채 모두를 승계하는 주식인수 방식으로 98 년 11 월 2 일 인수 계약 체결하였으며, 자금압박 문제는 계속됨
- 이후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국일운수에 매각 결정(전원 고용승계 조건 등으로)

### △ 백상타월: 노동자인수기업 실패사례

- 청주에 소재한 백상타올은 타월 생산업체인 (주) 프린스가 96 년 초 부도를 맞자 소속 노동자들이 96 년 9 월 백상타올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들의 체불임금과 은행차입을 통해 96 년 말(혹은 97 년 초) 경매에 참가해 공장을 인수해 운영을 해왔었음.

- 공장인수자금 중 13 억원이 은행차입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로 인해 백상타올은 임금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내부결정이 이루어졌고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호텔납품.관급 입찰 등과 함께 일본과 미국의 판로 개척을 추진하면서 매출신장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했음.

- 그러나 경영이 안전궤도에 완전히 진입하기 이전에 백상타올은 2000 년 초에 부도를 맞아 기업활동을 정지하게 되었음.

당시 부도의 원인은 기업 재무활동의 실책이라 지적할 수 있음. 즉, 고정부채가 많았던 백상타올이 불안정한 타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그 기업의 부도로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 부도에 처한 경우임.

- 백상타올의 부도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당시의 재무상태로 보서는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자금조달 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추정됨.

#### △ 르비양전자(주): 노동자인수기업 실패사례

- 경기도 화성소재(2003 년 현재는 경기도 이천으로 공장이전)의 소형 가전제품(가습기, 선풍기, 토스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전 기업인 제일가전(주)의 부도 및 청산과정에서 99 년 1 월 르비양전자(주)로 법인을 신규설립하고 99 년 4 월 경매에 참가하여 공장을 인수.

- 그러나 공장인수시 노동자 개개인의 대출에 의존한 자금조달 등으로 노동자인수기업 출범 초기부터 운영자금 압박요인이 지속되었으며, 또한 제일가전(주)의 부도와 함께 단절되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OEM 방식의 납품관계 미복구(제일가전 당시 매출액의 90% 차지)로 악화된 시장환경이 지속됨.

- 결국 2001 년 10 월에 물류 전문업체인 (주)BDK 에 매각하였음

- 현재 르비양전자(주)는 (주)BDK 의 관계회사에 편입되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BDK 의 유통망에 기초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빌리지 개발과 한림스키저캐스팅: 노동자인수기업 실패사례

- 시설관리 용역업을 수행하는 빌리지개발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한림스키저캐스팅은 업종의 성격이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노동자기업인수 과정도 상이하게 다름.

- 빌리지개발의 경우 태릉선수촌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부서를 폐지하고 외주처리를 하려는 경영계획에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고 노동조합이 용역회사를 설립해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설립한 회사임

반면 한림스키저캐스팅은 부도기업을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체불임과 퇴직금을 이용해 인수한 노동자 인수기업임.

- 그러나 위의 두 기업은 조직의 비민주적 운영이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음.

- 빌리지개발은 회사의 설립을 주도했던 노동조합의 몇몇 간부들이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회사 지분을 독점하려 했던 상황에서 경영진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내부 불신이 깊어지고,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지는 내부 다툼이 발생하여 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설립 1 년만에 3 자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음

- 한림스키저캐스팅의 경우 인수과정에 참여했던 회사의 경영진(노동자들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외부인과 결합하여 회사를 독식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드러나면서 와해된 기업임

- 경매 참가를 앞두고 자금조달 계획과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불투명한 의사표시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외부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이 노동자들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었음.

그러나 당시 대표이사가 기술개발 및 원청기업과의 관계에서 열쇠를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현장노동자들만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포기한 곳임

#### △ 삼화정밀: 인수 그 자체가 실패한 사례

- 도어클로저를 생산하는 (주)삼화정밀이 97 년 6 월 부도가 나자 97 년 7 월노동자 9 인(조합원 5 인과 비조합원 4 인으로 구성)을 공동대표로 하는 개인기업으로 설립되었음

- 국내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외국에서도 브랜드인지도가 높았던 (주)삼화정밀의 부도는 무리한 차입의 결과였음. 그러나 차입한 자금이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던 이유로 당시 노동조합은 고의부도를 의심하고 있었음.

- 임금삭감, 순환노동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삼화정밀은 조합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99 년 공장경매에 참가를 결정하고 법인으로의 전환, 자금조달을 위한 은행과의 실무접촉 등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음.
- 그러나 공장은 제 3 자를 내세워 경매에 참가한 (주)삼화정밀의 사주에게 넘어가고 삼화정밀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고 해산하게 됨.
- 당시의 협약 내용은 (주)삼화정밀의 공장을 인수한 경락자는 삼화정밀의 유형자산을 적정가격으로 인수하며, 소사장제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에 한해 고용을 승계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었음.

## 별첨 2: 노동자기업인수 지원센터가 인수를 지원한 업체 현황

(\*주: 자료 유실로 60 개업체만 첨부)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의 지원 업체 현황							
	업체명	前 업체명	업종	지역	설립/인수	성격	고용
1	(주)경남매일신문	(주)경남매일	일간지	창원	99.1 예정	부도후 재창립	135/50
2	(주)고려인삼식품산업	(주)고려인삼수출산업	인삼가공	춘천	98.6 설립	부도기업인수	50/일시
3	(주)골드폼	(주)서울프라스틱	단열재	화성	98.9 설립	부도기업인수	100/40
4	상록플라자	공무원연금매장	레저, 매장	전국	99.1 예정	폐쇄사업부인수	202/200
5	대덕정밀	(주) 대송정밀	자동차부품	대구	98.2 설립	부도기업인수	35/30
6	(주)대신산업	(주)대신공업	자동차부품	사천	98.4 설립	부도기업인수	80/40
7	(주)대전산업	(주)호주산업	프레스가공	경주	98.8 설립	부도기업인수	30/30
8	대흥브랜드		배관자재	김해	98.8 설립	부도기업인수	19/19
9	(주)동아엔지니어링	(주)동아엔지니어링	설계,감리	서울	99.1 예정	청산기업인수 - 무산	400/90
10	(주)동양성유	(주)영진테크성유사업부	성유	서울	98.7 설립	부도기업사업부 인수	300/300
11	(주)동화프로덕션	(주)동화프로덕션	방송제작	서울	98.8 인수	부도위기때인수	12/12
12	(주)로알전자	(주)로알전자공업	бат데리충전기	부산	98.7 설립	부도기업인수	28/10
13	(주)리리제과	(주)리리제과	제과	천안	99.1 예정	부도기업인수- 경매실패	150/40
14	(주)범아상사	(주)범아공사	화물검수	부산	98.7 설립	부도기업인수	300/296
15	부산매일신문	부산매일	일간지	부산	99.1 예정	부도기업인수 - 무산	226/70
16	(주)빌리지개발	태릉선수촌시설관리	시설관리용역	서울	98.11 설립	폐쇄사업부인수	63/80
17	삼화정밀	(주)삼화정밀	도어크로저	양주	97.7 설립	부도기업인수 경매실패	105/85
18	광주무등일보	광주무등일보	일간지	광주		부도기업인수 - 무산	
19	대흥기계	대흥기계	방산업체	부천	화의중	부도기업인수- 부천,아산별도	
20	성창레드믹스	(주)한양레미콘사업부	레미콘	의정부	98.6 설립	폐쇄사업부인수	50/50
21	(주)세종기계	(주)LG 전선냉동기부	소형냉동기	군포	98.11 설립	폐쇄사업부인수	5/5
22	(주)신진특수공예사	(주)신진특수공예사	민속공예품	서울	96.8 설립	부도기업인수	10/5
23	동양버스	동양버스	시외버스	마석		부도위기인수-무산	250/250
24	(주)엔케이특수전선	(주)엔케이특수전선	특수전선	송탄	99.1 예정	부도기업인수-미확인	55/55
25	(주)영진	(주)영진테크전자사업부	열슈트튜브	용인	98.8 설립	부도기업인수-영업중단	20/18
26	만도멤앤소프트	(주)만도기계연구소	지리정보통신	서울	98.12 설립	분사기업인수	14/14

27	우리금속		샤시 도장		97.7 설립	부도기업인수	50/20
28	(주)우전	(주)디지산업	철구, 빌렛	옥천	98.9 설립	부도기업인수- 경영진변화	72/42
29	월드튜브	(주)수생기공	중장비부품	김해	98.3 설립	부도기업인수	65/40
30	(주)유화	(주)유화	폐기물처리	울산	98.12 인수	부도기업인수	46/46
31	인천사랑병원	세광병원	종합병원	인천	98.10 인수	3 자인수+경영참가	120/105
32	르비양전자	(주)제일가전	가전제품	화성	98.4 설립	부도기업인수	150/74
33	투나인정보기술	(주)조흥시스템	금융 S/W 개발	서울	99.1 예정	조합원 공동창업	65/40
34	(주)콤플라	(주)동선타수재료	전선피복	안산	98.12 설립	부도기업인수-무산	30/11
35	(주)피엔텍	(주)피엔텍	제지, 종이팩	천안	99.1 예정	부도기업인수-미확인	100/80
36	(주)한국배지	(주)코리아메디아	세균배양기	분당	98.11 설립	부도기업인수	34/20
37	(주)한림스키저캐스팅	(주)대림정밀	자동차부품	인천	98.7 설립	부도기업인수-무산	57/16
38	(주)한빛패션	(주)거평패션사업부	여성속옷	서울	98.3 설립	폐쇄사업부인수	27/30
39	부천시청노조			부천		폐쇄사업부인수- 미확인	
40	(주)한양머시너리	(주)한양중기사업부	중장비임대	서울	98.10 설립	폐쇄사업부인수	173/173
41	(주)혁성운수	(주)혁성운수	시내버스	서울	98.11 인수	부도위기때인수	260/260
42	(주)현대중기산업	(주)현대중기산업	건설중장비	서울	청산기업-조합원 고용유지-실패		195/195
43	수산자원공사	수산자원공사			99. 예정	분사시인수-무산	
44	신라정보통신	신라정보통신	정보통신	서울	99. 예정	부도기업인수-미확인	12/12
45	협신산업	협신인더스트리	염색가공	대구	98.12 설립	부도기업인수-미확인	50/31
46	(주)DM 로	동명	철강제관	부산	99.3 설립	부도기업인수	10/10
47	유니가이드 시스템	유니가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수입	서울	99. 예정	부도기업인수-미확인	15/13
48	서신전자	서신전자	컴퓨터부품 제조	수원	99. 예정	부도기업인수-3 자인수	15/15
49	대아통상	대아통상	자동차 정비기계	부천	99. 예정	부도기업인수	10/6
50	웅지자동차	동산자동차	자동차 정비업	서울	99.2 설립	부도기업인수	18/16
51	외갓집김치	호남외갓집김치	김치가공업	익산	98.4 설립	부도기업인수-미확인	64/31
52	경은상호신용금고	경은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	마산	99. 예정	부도기업인수-무산	49/49
53	영우제지	영우제지	제지원단업	함안	99. 예정	부도기업인수-무산	65/65
54	신오전자	신오전자	전자부품	서울	99. 예정	부도기업인수-무산	24/24
55	신촌운수	신촌운수	시내버스	서울	99. 예정	부도기업인수-미확인	200/200
56	(주)경보	(주)경보	합성수지	진접	99. 예정	부도기업인수	30/30
57	오성항타	오성항타	건설기초공사	서울	99. 예정	부도기업인수-미확인	20/20
58	한일병원	한일병원	병원	서울	미정		400/400
59	서천성모병원	서천성모병원	병원	서천	99. 예정	부도기업인수-미확인	75/65
60	뉴월드호텔	뉴월드호텔	호텔업	서울	미정	3 자인수모색	224/200

[출처] [국내 노동자기업인수 사례요약\(98-99 년\)](#) | 작성자 [송태경](#)